

# 전주형 통합돌봄 독자모형 발굴 총력

### 시, 성과공유·비전발표회 온라인 개최... 사업 실시 후 삶의 만족도 상승·의료비 절감 성과 등 나타나

전주시가 전주만의 통합돌봄 독자모형을 발굴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통합돌봄은 노인과 장애인 등이 병원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시는 29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변재관 전주시 통합돌봄 컨설팅단장, 이석원 서울대학교 교수, 박주중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박효순 전주효자시니어클럽 실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시 통합돌봄 2020 성과공유 및 2021 비전발표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성과공유 및 비전발표회에는 통합돌봄 컨설팅단과 민간지원단, 민관협의체 및 사업수행기관, 등 통합돌봄 창구 관계자 등 170여 명의 참여자들이 지난해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성과와 전주만의 통합돌봄 모형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2020 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에 참여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석원 교수는 "지난 2019년과 대비해 방문 운동지도 사업, 당뇨와 영양음식



전주시는 29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변재관 전주시 통합돌봄 컨설팅단장, 이석원 서울대학교 교수, 박주중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박효순 전주효자시니어클럽 실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시 통합돌봄 2020 성과공유 및 2021 비전발표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지원 사업,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에서 긍정적 변화가 관찰됐다"면서 통합돌봄 사업 실시 후 삶의 만족도가 상승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72.68%를 차지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통해 건강-의료인정장 사업 시작

이전인 지난해 7~8월과 이후인 9~10월 의료비를 비교 분석한 결과 1인당 총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은 월 100만원, 본인 부담은 월 15만원까지 줄어왔다"며 의료비 절감 성과도 강조했다.

이날 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

형도 제시됐다. 목표(안)는 '지역사회 기반 보건·복지 서비스의 연계-조정-통합을 통한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로 세워졌다. 이를 위한 세부 전략으로는 ▲사례관리 기능 강화 ▲컨설팅단 등 민·관 협력 강화 ▲기존 돌봄 서비스와 통합돌봄 관계 재정립 ▲새플미 등 권역 중심 복합 서비스 제공 ▲대상자 범위 확대 ▲인력 확충 및 전문성 확보 ▲전문성 갖춘 신중년 통합돌봄 서포터즈 활용 등이 제안됐다.

시는 이날 성과공유 및 비전발표회 내용을 토대로 전주형 통합돌봄 독자모형을 발굴하고, 이 독자모형이 전국으로 확산돼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공을 들인다는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는 지역사회 자원들을 총동원해 노인들이 가장 행복한 도시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면서 "올해에는 보다 확대된 융합형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는 맞춤형 복지에 적극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와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는 29일 전북노인일자리센터에서 '주거위기가구 긴급 임시거처 공급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긴급 임시거처 확대 방안 모색

### 전주시·주거복지센터, 주거위기가구 위한 공급 활성화 토론회

갑작스럽게 주거공간을 잃은 시민들을 위해 긴급 임시거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장애가 있는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품질을 담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주시와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센터장 오은주)는 29일 전북노인일자리센터에서 '주거위기가구 긴급 임시거처 공급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상실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위한 긴급 임시거처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LH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 네트워크 등 유관기관·단체와 시민, 관계자 등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오은주 센터장은 "현재 운영 중인 희망홀씨 순환형 임대주택 10호는 공실률이 매우 낮아 긴급한 입주 문의가 들어왔을 때 즉각적인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민간자원 연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임시거처의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임시 주거시설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노인 과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거처 확보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무장애 설계 등 주택 품질을 담보한 임시주거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근석 한국주거복지연구원장은 "임대주택에 발생하는 공가를 임시주거 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비주택 거주자들을 위한 주거상향 사업 등도 함께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수 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회에는 조락행 주거복지센터 팀장과 김민희 전북동 주민센터 주무관, 권대환 전북주거복지센터 대표, 최은희 LH 토지구획연구원, 송아영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종합토론회에서는 ▲임시거처 운영 시 전담인력 배치 ▲적정한 예산 확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적절한 환경의 주택 제공 ▲지속적인 임시거처 확보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는 지난해 8월부터 LH 장기미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임시거처인 '희망홀씨 긴급 순환형 임대주택' 10호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그간 자연재해, 강제퇴거 등 갑작스럽게 주거지 상실 위기에 처한 시민 20가구, 34명에게 무상으로 거처를 제공했으며, 지속적인 주거상담을 통해 주거위기 극복을 지원해왔다.

오은주 센터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긴급 임시거처가 확대돼 주거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희망의 씨앗을 가져다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 상습 침수피해 지역 우수저류시설 설치

### 전주시, 송천동 월평지구·평화동 학소제에 2024년까지

집중호우 시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송천동 월평지구와 평화동 학소제에 침수 예방 시설이 설치된다. 전주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2022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평화동 학소제가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4년까지 국·도비 109억2,000만원 등 총사업비 168억원을 들여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대상 지역은 평화동 학소제 인근으로, 이곳은 지난해 8월 시간당 62mm, 누적강수량 217.5mm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꽃밭정이 노인복지관과 푸른마을 아파트 주변 건물과 차량들이 침수피해가 입었다.

시는 학소제에서 내려오는 우수에 비해 배수관径 규모가 협소해 통수 능력이 떨어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유입구로 들어온 우수가 일시적으로 저류돼 방류할 수 있는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또 우수저류시설뿐만 아니라 건기 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이 포함된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선정됐던 송천동 월평지구에도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한다.

송천동 월평지구 역시 지난해 7~8월 집중호우로 전라선 KTX 선로가 침수돼 운행이 5시간 동안 중단되는 등 큰 피해가 있었던 곳으로, 총사업비 41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4년까지 우수관로를 정비하고 펌프장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그간의 재해발생 현황과 재해 위험요인을 집중 분석하고 시민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피해 저감 대책을 수립해 행정안전부를 찾아 사업의 시급성과 대안 등을 적극 건의해왔다.

김정석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은 "이번 재해예방 사업은 반복적인 침수로 인해 수년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만큼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재해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편의점서 시내버스 정기권 구입하세요"

### 전주시, 5월 1일부터 GS25편의점 195개소서 구매·충전 가능

이제 가까운 GS25편의점에서 전주시내버스 정기권을 구매·충전할 수 있다.

전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전주·완주 지역 GS25편의점 195개소에서 전주시내버스 정기권을 구매하고 충전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전주시내버스 정기권은 그동안 동 주민센터와 관광안내소 등 21개소에서만 구매·충전할 수 있는 데다 이용 시간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적이였다.

이에 시는 지난날 GS리테일(사장 조운성),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이사장 김진태), 캐시비(대표 이사 이근재)와 업무협약을 맺어 가까운 GS25편의점에서 언제나 손쉽게 정기권을 구입하고 충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동 주민센터와 관광안내소는 6월부터 판매 및 충전 업무가 중단된다.

시는 전주시내버스 정기권 판매·충전 장소가 9배가 넘게 늘어나 점진성과 편의성이 높아지는 만큼 시민들과 여행객들의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주시내버스 정기권은 지난해 7월 시내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학생과 직장인 등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정기권은 ▲1일권 5,000원 ▲2일권 9,000원 ▲30일권 4만원 등 3종으로 구성돼 정해진 기간 동안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가까운 편의점에서 정기권 구매·충전이 가능해지는 만큼 이용 시민과 관광객들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성교육 전문 인력 양성 나서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센터장 심화과정)는 다음 달 26일까지 아동·청소년 성교육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2021년 성교육 활동가 양성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성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이번 교육과정은 기본과정(36시간)과

심화과정(30시간)으로 구분돼 오는 6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운영된다.

희망자는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홈페이지(www.jonjusa.com)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063-251-1318)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